

元老科學技術者の 證言

〈 2 〉

地質學者가 되기까지의 動機와 그 背景



朴 東 吉 博 士 篇

— ② —

◎ 夜學을 하게 되다

두 親舊가 떠나버린 그즈음 나도 귀국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이곳에 머물면서 初志一貫 技術을 터득해야 할 것인가 하고 내 앞길을 생각해 보았다.

나는 곰곰히 앞날을 생각해 보니 이 生活을 계속해 보아야 紡織工場社長은 커녕 잘 돼야 職工 노릇밖에 못할 것 같았다.

그때 나는 이런 生活이 계속되어서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工夫를 하기로 決心하고 夜學을 다니기로 했다. 그러나 내가 學校에 다니자면 이만 저만한 隘路가 있는게 아니다.

첫째 學校受業이 6시에 시작하는데 退勤도 6시라서 工場長의 허락없이는 入學이 도저히 不可能했다.

이래서 나는 工場長을 찾아가 學校에 다닐 수 있도록 5시 退勤을 간청했다.

또 나는 각종 機械分解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盲目的일 뿐 體系的인 技術이 못된다고 말하고 이제는 더욱 工夫를 하며 學問的으로 技術을 배워야겠다고 하자 工場長은 허락 대신 英製도리바式 紡織機에 관한 冊을 주며 읽으라고 말했다.

얼마 전까지 가지고 있다가 學校圖書館에 寄贈했지만 그때 받은 책은 읽어봐도 理解가 안돼 아무 것도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이래가지곤 안되겠다고 다시 마음을 다져 먹고 工場長을 찾아 또 사정했다.

이런 나의 간청이 주호해서 결국 工場長의 허락을 받고 關西商工學校 夜間部를 入學했다. 이와같이 千辛萬苦 끝에 學校에 들어간 나는 매일 오후 5시 工場食堂서 알람미밥을 얻어먹고 40분 정도 바삐 걸어야 했다.

學生들이라야 日本人 工場職工들이었지만 그들은 韓國사람으로는 하나뿐인 나를 아주 무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는가 하면 내 허락도 없이 노트를 가져가는 것이 例事였다. 그러나 나는 이런 受侮를 참고 견디며 工夫에만 熱中하였다.

나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工場에 근무한 후 學校로 뛰어가고 저녁 9시후 돌아오면 12시경에 잠을 자게 된다.

나는 이러한 생활이 계속되다보니 몸이 쇠약해질대로 쇠약해져서 얼굴이 붉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이래서 나는 이 생활이 계속되면 죽겠다는 생각이 앞서 궁리끝에 大阪市廳서 처음 만난 핫도리書記를 찾기로 했다.

市廳을 그만두고 印刷所經營을 하는 핫도리씨

★ 特別企劃 ★

를 찾아간 나는 내 事情을 먼저 말하고 오후 시간여유가 있는 官廳就職을 부탁했다.

그후 나는 핫도리씨의 주선으로 大阪市立工業研究所 雜役夫로 일하게 됐다.

日當 80錢으로 얼마 안되는 收入이나 9시 출근하고 오후 5시 퇴근할 수 있어 學校다니기엔 아주 좋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던 關西商工學校를 1學期도 채 안마치고 다시 大阪工業專修學校 中等部 應用化學科를 入學했다.

◎工專中等部 入學

비록 채소시장근처 2층 다다미방이긴 하나 월 1원 50전에 빌려 자취하며 고되지 않은 직장일을 마치고 學校를 다니게되니 이젠 내 健康도 차츰 회복되고 學業成績도 부쩍 올라가는 것 같았다.

내가 다니는 應用化學科엔 學生이 60명. 대부분 學生들은 수업시간에 졸았으나 나는 그럴수록 더욱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혹 모르는 것이 있으면 研究所職員들에게 물어 그날 배운 것은 모두 알고 넘어갔다.

이렇게 熱心히 功夫한 결과 1學期成績이 다섯째로 優等生이 되었다.

優等生이 되자 평소 내게 이야기조차 건지지 않던 日本人 學生들은 인사도 하고 모르는 問題가 있으면 물어오기도 하며 아주 친절해지기 시작했다. 또 研究所 庶務主任 노사끼는 구두까지 사주었다.

그런데 내 봉급으로 공부하며 한달간 자취하기엔 너무 적어 많은 고생을 했다. 때로는 하얀콩 몇개씩 박혀있는 1錢짜리 밀가루빵 2개로 아침을 때운 적이 있는가 하면 신밥을 수도물에 씻어내고 먹은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또 겨울엔 고구마로 저녁대신 먹으며 學校에 가기도 했다.

또 나는 參考書 살 돈이 없어 헌 책방에서 試驗工夫를 하다가 책을 사지 않고 읽기만 한다고 쫓겨 나는가 하면 學費를 보태기 위해 夜警도 3~4個月 하다 얼굴이 부어올라 그만두었다.

이와같이 돈없이 공부하기란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그중에서도 감기가 들면 제일 곤란했다. 그때 藥도 먹지 못하고 누구 한사람 따뜻한 물 한그릇 주지 않았다.

이럴 때는 나 자신을 慰勞하기 위해 科學發達史나 고생하며 發明한 이들의 헌책을 밤새 읽었다. 지금도 記憶이 나지만 그때 日本에는 다쿠마式 보일러가 있었다. 다쿠마라는 日本人이 처음 보일러를 發明했다 해서 다쿠마式 보일러라 했는데 특히 그 사람의 自叙傳을 感銘 깊게 읽었다.

나는 이런 環境 속에서도 缺席한번 안하고 1921년 大阪工業專修學校 中等部를 卒業하고 그해 4월 同校 夜間 高等部에 入學했다.

◎高等部 晝間學生으로

高等부에서도 遲刻한번 안하고 學校에 다니며 工夫에만 專念한 내이름이 教授들 간에 자주 야기 되었다.

1學年 11월경 어느 날이다.

구하다 物理學教授가 자기 방으로 나를 부르더니 日本에 온 때와 지금 내가 지내고 있는 處地를 상세히 물은후 晝間部로 옮길 수 없겠느냐고 말했다. 그런 말을 들은 나는 구하다 教授에게 자취를 해가며 간신히 夜間에 다니므로 晝間에 옮기면 學費調達이 어려워 不可能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하다教授는 무슨 方法이 있겠지하며 무조건 다음해 3월 晝間入學試驗을 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는 구하다教授말로 合格이 되면 어떻게 되겠지하고 不撤晝夜 試驗準備를 했다.

다음해 나는 3월 應募者 40名과 같이 試驗을 치른 결과 合格됐다.

그때 合格者중 韓國사람으로선 나외에 김종서 그리고 總督府 獎學生 박경수도 있었다.

나는 춤을 출 정도로 기쁜 마음을 안고 研究所에 돌아가서 晝間部入學試驗에 合格했다고 말하자 또 칭찬이 대단했다. 그런가 하면 어떤 技士는 모자와 구두도 사주며 더욱 열심히 공부를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나는 가끔 學費가 없어 공부를 못하겠다고 말하는 요즘 學生들을 생각해본다.

그런 學生들은 게을르고 努力을 하지 않는 學生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내 經驗을 비추어 볼 때 하면 안되는 것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요즘

젊은 學生들에게 하면 된다는 信念을 항상 가지라고 말해 준다.

다시 그때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晝間部 入學試驗에 合格한 나는 앞으로가 참 막연했다. 晝間에 가자니 職場을 그만 두어야 하겠고 또 職場을 그만두면 돈이 없어 그나마 生活마저 꾸려나갈 수 없는 進退兩難의 處地에 놓였었다.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듯이 노사끼 庶務主任이 나를 찾아와 자기 집에 와서 中學入學試驗에 해마다 떨어지는 자기 아들을 指導하며 學校에 다니라고 했다. 나는 그제서야 됐다 하고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校服이 問題였다. 모자, 구두는 남이 사준 것으로 해결했는데 校服준비를 못해 고민하고 있던차 마침한 日本卒業生을 만났다.

나는 그가 입고 있는 校服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내가 입고 學校에 다닐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자 순순히 주겠다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으졌한 晝間部學生이 된 나는 노사끼 집에서 아침 저녁 청소도 하고 설겅이까지 해취가며 學校다닌다는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노사끼 아들은 조금만 꾸중해도 울며 내가 때렸다고 고자질하고 내말도 듣지않아 죽을 지경이었다.

더우기 그때 나는 노사끼 아들의 憤憤정도는 참고 견뎌 나갈 수 있었으나 내 공부할 시간이 없어 큰 걱정이었다.

◎總督府 官費留學生되다

그때 학교에 가면 교실에 으것이 앉아 있는 우리나라 유학생 김종서, 박경수가 그렇게 부러워 보일수가 없었다.

그런 나는 그들 둘을 부러워하며 나날을 보내던 5월이었다.

教室 칠판에 내게 登記便紙가 왔으니 찾아가라고 써 있었다. 이상하게 여긴 나는 庶務課에 가서 便紙를 찾아 봉투를 뜯어보니 總督府 官費留學生이 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매달 주는 獎學金 30원을 보냈다고, 찾아가라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내용의 便紙를 읽은 나는 박경수나 김종서한테 갈 편지가 나한테 잘못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곧 바로 김종서한테 찾아가 便紙를 내

보이며 경위를 물어 보았다. 그러나 그 便紙主人은 내가 틀림없었으며 이런 사실이 내가 다니던 研究所 직원들에게까지 알려지자 모두 기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노사끼씨는 저녁식사로 스끼야끼까지 마련해주며 먹으라했다.

나중에 알려진 事實이지만 내가 總督府官費留學生이 된 것은 구하다教授가 주동이 되어 進學試驗이 내 成績과 현재 처하고 있는 實情을 자세히 적어 總督府에 보내고 官費留學生으로 시켜 줄 것을 건의한 결과였다.

그때부터 나는 설겅이 신세도 면하게 되고 下宿으로 옮겨 밤낮 공부에만 전념, 1925년 3월 大阪高等工業學校 應用化學科 本科 卒業狀을 받게 되었다.

당시 韓國·台灣서 留學으면 모두 特別生취급을 받아 卒業후 畢業證만 주도록 校則이 되어 있는데 나와 김종서는 10等以內여서 卒業狀을 받았다.

나는 卒業後 歸國하려고도 했다.

그런데 그당시 우리나라에는 化學에 관련된 會社는 永登浦 皮革會社 하나뿐으로 나는 그때 皮革會社는 들어가기가 싫었다.

또 내가 歸國하면 中學校教師가 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 고생을 다해서 공부해 가지고 겨우 中學校 教師나 해야 하는가 하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어떠한 苦難이 닥치더라도 이를 물리치고 大學에 進學할 것을 決心했다.

그러나 그해 入學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돼었다. 入學期 3월이 지나고 4월이라서 다음해 大學入學을 하기로 하고 廣榮製藥株式會社 研究室 技士로 就職을 했다.

◎廣榮製藥會社 취직

研究室에 配置된 나는 京都帝大 출신 시라노室長으로부터 갖은 賤待와 減視를 받았다.

시라노室長은 평소 傲慢不遜하고 또 京都帝大出身이라고 우쭐했으며 우리 研究室職員인 早稻田工科 출신技師와 京都藥傳 출신藥師 등 같은 日本人이면서도 멸시하는가하면 專門學校 나온 나를 더욱 알보았다. 그런가 하면 그는 職務에도 소홀하며 다른 職員들의 研究에도 翫방을 놓기가 일쑤고 심지어 여름철엔 日課時間에 맥주

★ 特別企劃 ★

까지 마시러 가자고 흥동질했다.

당시 내 月給은 70원. 그때 70원의 내 收入은 적은 게 아니었으나 지금까지 내가 겪은 고생과 앞으로의 學費 마련을 위해서는 貯蓄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나는 시라노室長이 맥주 마시자고 提案하면 一切拒絕하고 會社 앞에서 월 6원짜리 下宿을 하며 돈과 時間을 최대한 節約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름을 받고 달려간 내게 社長은 研究테마를 주었다.

社長으로부터 내게 주어진 研究테마는 飛行機에서 使用하고 버려지는 피마자廢油의 精製方法을 개발하라는 것이었다.

당시 鑛業製藥은 비록 個人會社이긴 하였으나 特別 賞與金制를 마련, 전체 職員들에 研究機會를 균등하게 주었으며 자기가 받은 테마 研究에 成功하면 보너스는 물론 月給까지 인상, 職員들의 士氣를 높여 주었다.

나는 그때 韓國사람이라고 늘 없이여기고 비웃는 日本人職員들 앞에서 이 機會에 내 實力을 誇示, 그들의 높은 窠대를 격어 보이리라 決心하고 피마자 廢油精製 연구에 몰두했다.

이때부터 大學進學 공부는 뒤로하고 會社에서는 물론 日課가 끝나고 집에 와서도 밥숟가락을 놓기가 바쁘게 實驗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같은 내 研究生活는 평탄하지만은 않았다.

社長에게 잘 보이기 위해 저녁에 집에서 연구만하고 會社에서 個人主義行動을 취한다고 우리 研究室 日本人技師에 뺨까지 얻어맞은 적도 있었다. 그래도 나는 이런 정도의 完력이나 行패에 굴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한 결과 피마자廢油精製에 성공, 月給을 10원 올려받았고 3개월분의 賞與金도 탔다.

이런 일이 있는 며칠 후였다. 社長이 또 나를 부르더니 내가 연구한 피마자廢油 精製方法은 색깔도 좋고해서 매우 훌륭하나 熱을 받으면 性分自體가 變質한다는 衛生試驗所의 不合格 通告로 販賣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나는 아빨사 큰일났구나 하고 苦心 끝에 圖書館을 찾아가 이 책 저 책을 뒤져 마침내 피마자유를 原料로 한 도로코유 製造册字를 찾아냈다.

물론 實驗費가 많이 所要되는 농황산을 使用하는 獨逸方法이긴 하나 이를 參考하여 1年後

缺點을 補完하는데 完전 成功시키고 大阪市立工業研究所 染色部를 찾아가 試驗을 의뢰, 優秀品으로 증명되어 그 證明書를 社長에게 제출했다.

이를 본 社長은 무척 좋아하며 특별 보너스는 물론 月給도 또 10원 올려주어 90원을 받게 되었다.

그후 廣榮製藥會社에선 精製된 피마자 廢油가 하루 10餘톤씩 팔리던 어느날 社長은 날더러 돌아오는 日曜日 會社에 나오라고 말했다.

日曜日 출근한 나는 社長으로부터 우리 會社와 去來하는 染色會社 理事長과 자기 친척별되는 藥師를 소개받았다.

그리고 社長은 나더러 그들 立會下에 피마자 廢油 精製實驗을 해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싫지만 하는 수 없이 社長말대로 모두 實驗을 해보였으나 어쩐지 마음이 개운치 않고 社長마저 나를 不信하는 것 같이 여겨져 끝내 禍까지 치밀었다.

나는 그때 社長立場에서도 생각해 보았다. 즉 자기 직원이 피마자廢油 精製方法을 개발했으므로 이를 만들어 染色會社에 팔면 그만 일터인데 왜 그들을 데리고 와서 立會下 實驗을 하라고 했는지 理解가 안되었다.

◎피마자廢油精製特許權 획득

社長意中을 도대체 알 수 없었던 나는 그런 處事가 더욱 패섬하게 여겨지고 미워지기까지 하여 곧바로 아무도 몰래 特許願을 제출하고 말했다.

特許願제출 얼마후 내 일생 처음으로 피마자廢油 精製特許權을 획득한 나는 大學入學준비를 서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1927년 2월 社長을 찾아가 辭意를 밝히고 다음날 庶務科에 辭表를 냈다. 그리고 나는 그때부터 東北帝國大學 理學部入學試驗을 준비, 무난히 合格되어 그해 3월 入學했다.

내가 帝國大學을 選擇한 것은 鑛業製藥 시라노研究室長의 거드름 때문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帝大出身이라고 항상 傲慢不遜하던 그는 나를 帝國大學에 가게 한 하나의 促進劑役割을 한 것이다.

半世紀이상 지난 요즘도 나는 東北帝大 入學筆

記試驗을 마치고 그 이튿날 口頭試驗을 치를 때의 일과 專攻科目을 化學에서 地質學鑛物分野로 轉換하게 된 때의 일이 종종 머리에 떠오른다.

내 차례가 되어 口頭試驗場에 들어섰다. 그곳엔 教授들로 보이는 7~8명의 試驗관이 한 줄로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중 제일 뚱뚱하고 主任 教授로 보이는 한 사람이 내 記錄을 보더니 생긋 웃은 후 언제 日本에 왔으며 또 하필이면 地質學을 공부하려고 하느냐고 물었다.

이같이 質問을 받은 나는 日本에 건너온 때와 지금까지 지내온 내 履歷을 간단히 먼저 말하고 地質學 選擇 동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專攻하는 學科는 卒業後도 就職이 잘 안되므로 남들이 專攻 안하는 科를 擇해 功夫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地質學科를 선택했다」고 對答하자 또 생긋 웃고 몇 마디 더 물어본 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가라 했다.

口頭試驗을 마친 나는 焦燥하기 이를데없어 教室현관을 이리저리 거닐기를 수십번——, 이때 口頭試驗官이었던 와다나베 教授(이름은 나중에 알았음)가 현관에 나오더니 나에게 『오후 3시 合格者發表가 있으니 大學本部에 가보라』는 것이 아닌가. 이 말을 들은 나는 合格이 되었으니 確認해보라는 말 같기도 하고 不合格을 暗示하는 말 같기도 하여 더욱 焦燥한 마음을 안고 大學本部 앞으로 뛰어갔다. 滯日 10餘年の 나의 艱難을 이 한 瞬間으로 補償을 받느냐 아니면 無爲로 끝나 버리느냐 하는 兩端에서 조용히 3시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心臟의 鼓動은 더욱 벌떡이는 것 같고 肉身은 자꾸 조여드는 것만 같아 참기 어려웠다.

◎東北帝大 合格되고 울다

그때 揭示板에 合格者發表榜이 붙여지고 있었다.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揭示板 앞으로 한발 두발 옮겼다.

發表場 주위는 벌써 合格, 不合格의 喜怒哀樂이 엇갈리는 순간 내눈이 번뜩이었다.

地質鑛物學科 合格者 7명중 내 이름 세자 「朴東吉」이 더욱 크게 보이지 않은가.

나는 그제서야 安堵의 긴숨을 들이쉬었다.

한날 雜役夫에서부터 시작, 이제 모든 사람들의 羨望의 對象이 되었던 帝國大學生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자 기뻐 感激해야 할 나는 기쁨보다 지난날의 기구한 생활이 앞서 떠올라 눈시울이 적셔갔다.

日本生活 10餘年間 이렇게 나약한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는 이 날은 어쩐지 슬픈 마음이 북받쳐 한쪽 구석에 가서 울기도 했다.

나는 얼마후 눈물을 거두고 下宿으로 돌아오면서 앞으로 職場도 없이 學校에 다닐 생각을 하니 막연하기만 했다.

좋은 方法을 찾지 못한 나는 어느새 下宿에도착했다. 당시 基督教信者였던 나는 聖公會의 주선으로 그곳에 下宿을 하게 되었는데 이 下宿집엔 延大總長을 지낸 장기원씨, 梨花女高校長이었던 심봉조씨 등 한국인 학생 7~8명이 있었다.

내 얼굴을 본 이들은 한꺼번에 우루루 물려와 어떻게 되었느냐고 야단이었다.

나로부터 合格이 되었다는 말을 들은 이들은 서로 앞을 다투어 얼싸안기도 하고, 祝賀악수를 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과 함께 그날밤 술까지 들어가며 즐기고 다음날 내 집을 꾸리기 위해 大阪 鑛業製藥으로 갔다. 그곳에서도 學校에서 보낸 葉書를 받아보아 이미 내 合格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 많은 직원들로부터 축하를 받았다. 그중 내 뺨을 때린 日本人技士도 그같은 일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이 내 合格을 기뻐하며 자기집 招待까지 하여 더할나위없이 기분이 좋았다.

다시 下宿집에 돌아와 책등 짐을 대충 꾸리고 난 나는 東北帝大가 있는 仙台(센다이)로 떠날 준비를 서둘러야 했다.

이때 내가 가장 걱정했던 學費問題가 해결되었다.

내가 다니던 聖公會牧師로부터 大阪서 손꼽히는 實業家 한 사람을 소개 받았다.

牧師로부터 이야기를 들어 나를 알고 있는 그는 『10년 이상 雜役夫와 工場職工見習生 노릇을 하며 夜間學校를 다닌 너는 日本 사람도 들어가기 힘든 帝國大學에 들어갔으므로 바로 네가 模範人間이다』라고 極讚하며 學費걱정은 말라고 했다.

이렇게해서 막연했던 入學金과 生活費 일부를 마련한 나는 放學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으면 學業을 계속할 수 없었다.

이래서 나는 放學때면 大阪에 돌아와서 學生들 指導도 하고, 내가 전에 다녔던 市立工業研究所所장의 通譯도 맡아 1~2천원 주는 것으로 공부, 1930년 3월 東北帝大를 卒業하고 곧바로 歸國을 서둘렀다.

地質鑛山學科 졸업생 5명 중 한국 사람으로는 하나뿐인 그당시 나는 남이 안하는 學科를 選擇한 것이 크게 다행으로 여겨졌었다. 그때 그 判斷이 우리 나라 地質鑛物分野를 내가 開拓할 줄이야……〈문책·차준진〉